



### 번역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UPS 파업투쟁은 새해맞이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더불어 1997년 세계 노동운동의 양대 뉴스로 기록될 것이다. 이 두 싸움은 규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또한 특별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지배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선진되어 왔고, 제기에 상응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실업과 불황에 허덕이고 있던 선진국들에게 이혼마 미국식 모델을 권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의 총파업은 한국이 더 이상 신자유주의의 무풍지대(무풍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노동권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기에 대하여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정면으로 맞선 팀스터(Teamster) 노조의 용기 있는 투쟁은 미국 경제의 화려한 자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불행들과 생활조건에 파국을 고발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투쟁은 실리주의로 포장된 미국 노동운동의 뿌리깊은 보수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열망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UPS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공세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글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개혁적인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보적인 잡지 'American Prospect'에 실린 글들을 번역한 것이다.

- 역자의 글

## UPS 파업투쟁이 노동운동에 던지는 의미

로버트 쿠트너(Robert Kuttner)  
『American Prospect』의 편집자

쇠퇴의 길을 거듭하던 미국 노동운동에게 팀스터 노조의 승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UPS보다 더 사악한 적(敵)은 없었고, 파트타임에 관한 문제보다 더 뜨거웠던 이슈는 없었으며, 팀스터보다 더 노조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곳도 없었다. UPS는 노동조합이 대규모 파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던 몇 안되는 사례의 하나였다.

UPS는 미국의 모든 도시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고용된 노동자들은 고된 일을 하기로 소문나 있었으며,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탈산업화 시대를 사는 보통사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을 지지했다. 심지어 파업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조차 갈색 유니폼을 입고 파업대열에 선 UPS의 조종사와 운전기사들에게 동정을 표했다. 파업이 발생하자 소포배달 분야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UPS는 더 이상의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파업은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

근의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한마디로 압축해 냈다.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 이 말은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직, 하청, 다운사이징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의미하는 모든 유형의 사례들을 단순명쾌하게 표현하는 노동조합의 어법이었다.

이 이슈가 방송사의 톱뉴스들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유언론이 소비하고 있는 수백만 달러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었다.

파업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다른 그 누구도 이 문제와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해 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1만명의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파업투쟁을 통해서 팀스터는 시가나 씹어 물고 조합기금이나 유용하는 깡패 집단의 보스의 이미지에서 모든 이웃들의 열말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세력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연대'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시켰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AFL-CIO 위원장 스위니의 재정지원 요청에 즉각 응했다. 파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주일에 1천만 달러에 달했고, 팀스터의 파업기금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AFL-CIO 산하 노조의 지도자들은 1억달러의 담보를 제공했고 다른 노조원들도 팀스터의 피켓 라인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의 정치적인 의미는 노동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노조를 성가신 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의 친기업적인 지도부를 추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파업은 노동조합의 투쟁복표를 변화시켰다. 1950년대 이후 대다수 노동조합들은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안정적인 상층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규채용자들을 희생시키고 장기근속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방어하는, 이른바 이중협약(two-tier contract)을 사용하는 등 지멸적인 거래를 해왔다.

1959년 항만노조의 위원장 해리 브릿지(Harry Bridge)는 서부 연안의 해운업자들과 위협천만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노조원 명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임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잔류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분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역사적인(?) 합의문에 조인하면서 브릿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추세로 2000년까지 간다면 서부 연안에는 항만노동자가 한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개자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UPS의 파업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팀스터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보호하는 대신에 시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운동을 위해 힘과 자원을 사

용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역전되지 않는 한, 지금은 엘리트층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짐중하는 비정규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가 깨달았던 것이다.

1981년 레이건 정권 하에서 항공관제사노조(PATCO)가 굴욕적으로 궤멸 당한 이후 노동조합이 몇 차례의 전국적인 파업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번 UPS 투쟁에서처럼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를 얻어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렇다면 몇몇 노조 지도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번 싸움이 노동운동의 진정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직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미뤄졌던 노동운동의 이미지와 전략 그리고 동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수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과 치킨공장, 보육시설, 소매점, 가내공업 지대는 물론 은행과 보험회사에 이르기까지 파렴치한 사용자들과 노동조합 파괴를 선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들이 노동조합의 힘겨운 조직화 노력에 저항하고 있다.

거의 한 세대가 경과하는 동안 노동운동은 1930년대의 연좌농성과 같은 대중적이고 상징적인 투쟁을 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UPS 파업투쟁 이후에는 노조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직활동가들이 가입원서를 나눠주고 있을 때,

PATCO의 참담했던 패배를 떠올리거나 지난 날 지미 호파(Jimmy Hoffa)가 지배하던 시절의 부패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통사람들의 옹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적인 기구로 노동조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 UPS의 파업과 미국 경제의 논리

로버트 쿠트너(Robert Kuttner)

『American Prospect』의 편집자

팀스터노조의 파업투쟁은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가 끊임없이 잠식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UPS 사태는 이 시대의 경제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임금과 고속편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이윤을 늘릴 것인가? 미국 경제가 '상향식'과 '하향식'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위치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반 이상의 파트타임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크리스 티리(Chris Tilly)의 저서인 '반조각 일터(Half a Job)'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가족 전체의 소득은 17,000달러 미만이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

제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노동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활황의 어두운 이면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종신고용은 계속 소멸추세에 있으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 최대 고용주는 임시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업체인 맨파워주식회사(Manpower Inc.)이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 예컨대 학생,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그리고 퇴직자들이 종종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주자, 심지어 신문의 칼럼니스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망과 부리움을 사면서 프리랜서로서의 자신의 성공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파트타임 노동은 더 이상 피고용인의 안락과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비용을 줄이려는 자본의 적나라한 경영전략일 뿐이다.

고도의 숙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하는 고임금 직업인과 상대적으로 미미한 교섭력만 가지고 저임금과 어떤 추가적인 보상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심지어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평생직장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계약갱신의 위협과 박봉에 시달리는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

트화한 보직 강사들이 있다.

에초 팀스터의 파업은 파트타임을 더 늘리려는 UPS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UPS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의 가족소득은 연간 5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창고 노동자들은 시간당 8.5~10 달러에 어떤 추가적인 보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UPS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중간층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최첨단의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학위도 필요 없으며 단지 상냥한 태도와 '튼튼한 척'이 필요할 뿐이다.

노동조합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생산성을 감안하면 앞에서 말한 상향식의 방안이 회사를 위해서도 더욱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설사 하향식의 길이 UPS에 보다는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비용과 소득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을 때에 그 경제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향식의 길을 제어할 수 있는 통일적인 산업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투쟁과 교섭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 파트타임과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다.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몇 가지 동기들을 억제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시간당 임금과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임시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의료보험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일자리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대한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다. 더 낮은 노동비용을 노리는 외부와의 하향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모든 곳에서 양호하고 숙련 비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상향식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UPS는 노동의 가치절하를 통한 비용절감을 경영전략으로 고집했다. 왜냐 하면 자신의 경쟁자와 고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산업에서 하향식의 성장전략을 일소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의 소포를 배달하는 사람이 안정된 일자리와 쉼 팬창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누릴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 UPS와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의 다운웨이징(Downwaging)

로버트 라이히(Robert B. Reich)

전(前) 노동부장관, Brandeis University 사회경제학부 교수

유나이티드패슬서비스(UPS)에 대한 한 팀스터의 파업은 모든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궁색한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였으며, 활황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다운웨이징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당 9달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UPS의 소포분류 작업자와 하역인부들은 팀스터 노조원의 8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들의 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오르게 되고 그들 중의 많은 수가 시간당 23달러를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기업의 전체 비용에서 임금과 부가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임금비용을 삭감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어 왔다. 기업들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서 '다운웨이징'(downwaging)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결국 다운사이징을 통한 방법은 미국 경제에 대단히 폭넓게 분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UPS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주 초기부터 보더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었다. 오늘날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약 18%가 파트타임 노동자인데, 이 수치는 10년 전의 수준과 같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훨씬 늘려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업들은 임시직과 독립계약자(파견노동자)와 신규 입사자를 기존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중협약(two-tier agreement)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다. 경제상황은 확실히 활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중위임금-임금계단에서 정확히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가장 최근의 불황기인 1989년과 비교하더라도 5% 정도 더 떨어진 상태이다. 중간 수준이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급격한 임금인하를 경험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부가급여의 삭감을 경험했다. 1996년과 1997년을 비교해보면 중위임금은 아주 약간 상승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블루칼라 노동자

들의 상황은 대부분 더 악화되었다. 그 중의 다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쇠락이 동전의 앞면이었다면 뒷면에는 거의 같은 시기인 1980년대 초반부터 불붙기 시작한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의 호황이 있었다. 생산성 향상은 1960년대나 70년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80년대의 생산증가의 이득은 거의 대부분 자본의 이윤과 중역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와 같은 확장세가 개시되자 미국의 비금융계 기업들의 이윤율은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윤율의 증가는 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UPS의 주식 가치는 1990년대 들어서 2배 이상 상승했다.(UPS의 관리직 사원들이 자사 주식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블루칼라 직원들은 우선주 매입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UPS는 끊임 없이 시간당 9달러의 일자리를 계속 증가시켰고, 그만큼 UPS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노동조합들은 더 이상 다운사이징(해고)을 피하는 대가로 다운웨이징(임금삭감)이나 다운베네핏팅(수당삭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들은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미국의 전체 노동인구 중 10% 남짓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35%의 조직률을 보이던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그 비율이 감소해왔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많은 노동조합들은 사용자들로부터 기존 노조원들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부가급여를 보장받는 대신에 신규 채용자들(파트타임, 임시직 혹은 다양한 파견노동자들, 그들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기도 한다.)의 임금과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의 소위 '파우스트 협약'(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과 젊음을 맞바꾸었던 것에 비유)에 빠져들었다. UPS의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대부분 팀스터의 노조원인데, 파업 전에 작동하고 있었던 단체협약도 사실은 과거 노조의 동의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UPS 파업의 의미는 이와 같은 '파우스트 협약'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높은 기업이윤과 빈틈없는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생각과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적인 실업률은 5.5%를 밑돌고 있었고 최근 몇 달 동안은 5%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팀스터의 위원장인 론 캐리(Ron Carey)를 포함한 노조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파업중인 노동자를 대체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직노동자들의 공세적인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9월에 AFL-CIO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존 스위니(John Sweeney)는 서비스노조(SEIU)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결정적인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론 캐리(Ron Carey) 역시 팀스터의 선거판에서 악명 높은 지미 호파(Jimmy Hoffa)의 아들에 맞서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개혁파 인물이다. 그는 UPS에 대해서 한참을 비꼬고 있었으며, 평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똑심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임금상승 없이 저실업률을 보이는 상황은 일단의 경제분석가들을 당황시켰다. 과거에 그들의 전망은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기업주들을 압박해서 이윤의 일부를 나눠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을 올림으로써 - 그러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금인상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윤은 계속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이 폭등했던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1995년에 전체적으로 33.5%나 급상승했고 1996년에 26%나 뛰어 올랐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증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UPS

의 합의나 다른 파업, 혹은 노동자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주요한 임금협약을 통해서 이윤상승 → 주식시장 폭등 → 발루킬라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록 유수의 경제지들이 기업의 이윤율과 주식시장의 장세를 아무리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성공 여부가 그 문제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사회 전체가 번영의 혜택을 어느 만큼 골고루 누리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도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UPS의 합의가 우라에게 던지는 진정한 교훈이며 지금까지의 투쟁의 구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상류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간계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UPS 파업 때 여론은 분명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 심지어 미국인들에게 과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없는 팀스터조차도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다. CNN과 유에스에이투데이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55%의 미국 국민들이 팀스터를 지지한 반면 UPS 사용자 지지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1998년 총선이나 2000년의 대통령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은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